

明治日本の 対韓国教育觀에 관한 고찰

-明治期の 教育關係 雜誌의 論說 分析을 중심으로-

김 태 훈*

(e-mail: tkim@nier.go.jp)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연구의 의의
 3. 「日語學校」 설립의 시대적 배경과 韓國教育觀
 4. 「갑오개혁」을 전후한 개화기의 「日語學校」 설립과 韓國教育觀
 5. 「동아동문회(東亞同文會)」의 활동과 「러일전쟁」까지의 「日語學校」 설립과 韓國教育觀
 6. 「통감부」 시기의 「日語學校」 설립과 韓國教育觀
 7. 나가는 말
-

1. 들어가는 말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제국주의는 세계 각지에서 피지배 민족에 대하여 침략 사실을 정당화 또는 합리화하기 위하여 사상 통제 등을 통하여 우민화 정책을 전개했다. 이러한 우민화 침략 정책은 말할 것도 없이 교육을 통하여 전개되었기 때문에 많은 교육자가 동원되는 등 교육이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관하여 논할 때 당시의 국제적인 제국주의(imperialism)의

* 문부과학성 국립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교육사상사 교육정책사 전공

동향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다. 특히, 제국주의 열강의 상호관계, 열강과 피식민지국간의 국제적인 관계를 간과 할 수는 없다.

제국주의는 민족을 억압민족과 피억압민족으로 분리해 지배민족과 피지배민족으로 관계를 제도화 시킴과 동시에 침략주의(aggressionism) 군국주의(militarism) 팽창주의(expansionism) 전제주의(despotism) 식민지주의(colonialism) 등의 사상을 탄생시켰다. 본고에서는 이중에서도 식민지주의와 관련하여 타민족에 대한 억압 착취정책을 자행하기 위하여 교육이 어떻게 이용되었는가를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1858년 6월 미국과의 「수호통상조약」과 「안정5개국조약」(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네덜란드)에 의해 개국을 강요당해 그 후 1868년 메이지이신(明治維新)에 의해 250여 년간 이어온 도쿠가와바쿠후(德川幕府)를 타도해 쇄국정책에서 탈피하여 천황제의 근대국가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당시 근대화를 향한 개혁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일본 국내에서는 명치정권에 의해 봉건적 특권을 빼앗겨 몰락한 사족세력이 반란을 일으켰다. 명치정부는 그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로써 해외 침략을 계획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정한론(征韓論)」이다. 정한론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명치정부는 1876년 강화도에 군함을 파견하여 「강화조약」을 체결시켜 한국을 무력으로 개국시켰다. 그 후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대륙 침략의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군비를 대폭 확장하여 한국에 군대를 파견하는 한편, 반일 세력의 중심인물이었던 대원군을 납치하여, 정치, 경제, 외교 면에서 간섭을 행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대륙 침략의 야심은 1884년에 동양제국의 자발적인 개화는 불가능하다는 이념에 기초를 둔 「탈아론(脫亞論)」¹⁾을 주장하게 된다. 이 이론은 후쿠자와유키치(福沢諭吉, 1834-1901, 계몽사상가, 교육자)에 의해 공표되었다. 이보다 앞서 후쿠자와는 억압을 받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지배와 압정(壓政)을 행하는 일은 유쾌한 일이기 때문에 아시아에 대하여 고압적인 태도로 군림하여야 한다고 하였다.²⁾ 후쿠자와는 일본인은 인종적으로 우수한 인종이라는 논리를 전개한자로 앞에서 논했듯이 「탈아론」

1) 1884년 갑신정변의 실패를 지켜본 후쿠자와는 크게 실망하여 다음해 시사신보(時事新報)에 「탈아론」을 발표(時事新報, 1885년 3월 16일)후 1885년 8월 13일에 후쿠자와는 조선의 갑신정변 실패를 ‘조선의 멸망을 경축한다(朝鮮人民のためにその国の滅亡を賀す)(福沢諭吉著作集·第8卷 時事小言, 通俗外交論)’는 역설적이고 경멸적인 어조의 글을 썼다. 그 글에서 그는 조선 개혁의 실패는 사리사욕에만 관심을 가진 정부의 관리들이 국민의 생명, 재산 등을 지키지 못함으로 마침내는 외세에 의해 점령당하는 불행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결과를 예측하고 울분을 토한 것이다.

2) 「壓政もまた愉快なるかな」 『時事新報』.1882년3월28일.

에서 그가 당시의 청국과 조선에 가했던 비판은 이러한 그의 사상과도 결코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그후 그가 설립한 케이오기주쿠의 제자인 타카하시요시오(高橋義雄1861-1937)에 의해 1884년 「일본인종개량론(日本人種改良論)」으로 정리 간행 했다. 이 인종개량론은 아시아 각국에도 사상적 영향을 끼쳐 훗날 중국의 근대 사상가이자 교육자이며 개혁가인 량치차오(梁啓超1873-1929), 한국의 도산 안창호(安昌浩1878-1938)의 ‘민족개조론’ 베트남의 독립운동가인 판보이차우(Phan Boi Chau,1867-1940)에게 영향을 끼쳐 각국에서 ‘민족개조론’이란 사상이 나오게 된것같다.

이렇듯 아시아 민족에 대하여 고압적으로 군림하여야 한다는 그의 사상은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과 대만 중국 등에서 침략정책을 전개함에 있어서 자국민 우월의식과 민족차별의식을 조장시키고 즉 자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상황 아래서 일본 제국주의는 아시아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민계몽과 사상통제를 통하여 일본민족의 우월성과 일본인 이외의 아시아 민족의 무지와 열등성 및 아시아 민족에 대한 멸시관을 교육관계 잡지와 신문 등을 통해서 자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주입시켰다. 소위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Mind Control.)이다. 이러한 사상 통제 정책과 병행하면서 피지배민족에 대하여는 침략행위를 정당화 시키려고 그 나라 종래의 풍속과 습관에 대하여 비판적인 평가를 하는 등 당시 한국에 대하여는 「日本帝国ノ保護国タルノ運命」³⁾(일본제국의 보호국이 될 운명)이라는 사상을 주입시키며 한민족에게 민족적 열등감을 심어주었다. 즉 일본의 아시아 침략의 기본정책은 아시아 제국을 일본화 하는 길이며 일본화야말로 근대화의 길이라는 사상에 근거하여 전개되었다.

그 때문에 일본제국주의의 한국에 대한 교육침략의 기본적인 정책도 한민족을 철저하게 일본화하려는 「同化政策」에 있었으며, 그로인해 한민족에 대한 교육정책은 당연히 「愚民化=文盲」에 중점을 두고 전개되었다.

이러한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한국인에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극도로 제한되어 대다수의 한국인이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⁴⁾. 이것은 한국인 아

3) 日本外務省記録『韓国ニ於テ学部顧問傭聘ニ学政改革一件』. 1905년의 幣原의 『韓国教育改良案』 第1章 方針.

4)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1895년 부터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은 대만의 경우 시기적으로 늦지만 1941년에 6년간의 의무교육제도가 도입되 1943년 통계에 의하면 71%의 대만아동들이 의무교육을 받고 있었다.

동의 초등교육기관에의 취학률이 1921년 6.8%. 1930년에 18.5%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⁵⁾ 그 결과 1945년 해방 직후 한민족의 79%에 달하는 국민이 민족의 언어인 한글도, 지배자의 언어였던 일본어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이른바 비식자 상태에 빠졌다.

이러한 사실로도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교육정책은 한민족을 문맹화 시켜 「일본제국주의 신민(臣民)」으로 양성하려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⁶⁾.

본 연구에서는 일본제국주의가 한국에 대한 교육침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894년 「갑오개혁」에서 1910년 「한국강압」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대한 어떠한 교육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일본의 명치기에 해당하는 이시기의 일본의 교육관계 잡지의 논설과 기사 등의 분석을 통하여 당시 일본인 오피니언리더들의 한국에 대한 교육관(對韓國日語教育觀)을 일어교육관을 중심으로 밝히고자 한다.

2. 연구의 의의

지구상의 많은 나라가 근대국가의 성립과정에 있어 무엇보다도 교육을 국가의 중심사로 자리매김해 국민들의 사상의 통제를 위해 교육을 국가가 관리하기 위해 의무교육제도를 도입한다. 일본도 명치유신을 기회로 교육에 대한 사고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어 교육을 국가가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가 통솔하게 되면서 많은 교육자 사상가들이 정치가에게 이용당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술했듯이 영토확장을 위해 한국등 아시아제국을 식민지 통치하에 편입시키기 위한 자신들의 침략 정책을 국민들에게 합리화 시킬 필요가 있었다. 합리화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 당시의 저명한 오피니언리더들을 동원해 각종 교육관계 잡지 신문등에 침략을 정당화시키는 논설등을 집필시켜 국민계몽운동에 실시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教育時論』 『教育界』 『教育公報』 등의 각종 교육관계 잡지, 『東亜時論』 『東亜同文会』 『同仁』 등 아시아 관계

5) 小沢有作 『在日朝鮮人教育論-歴史編一』. 亜紀書房. 1988년. 8쪽.

6) 이러한 사상은 현실화되어 한국강압후 공포된 「조선교육령」에 의하면 한국민에 대한 교육의 기본방침은 총량한 국민 「忠良ナル国民」으로 양성하는데 두고 있다. 하지만 당시 교육침략정책에 관여했던 일본인 관리들은 진정한 동화는 내적인면에 있는것으로 교육령 제정당시 한국민을 총량한 국민으로 양성하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총량한 국민이 아닌 순량한 양민으로 「…忠良ナル良民ヲ育成スルヲ以テ教育の精神眼目トシ…」 하려했다. 이는 당시 한민족의 강한 반일사상과 민족주의에 입각한 교육구국운동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기관 단체지, 『太陽』 『中央公論』 등 일반잡지등이다.

본고에서는 명치일본정부가 어떠한 내용으로 아시아 침략의 정당성을 합리화 시키기 위하여, 즉 아시아 멸시론 아시아 停滯觀을 그러한 아시아 교육의 停滯를 突破하기 위하여 선진일본이 어떻게 지도해야하는가, 일반국민들에게 일본인의 우월의식을 어떻게 사상적으로 계몽시켰는지, 당시의 교육관계 잡지의 논설 사설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 규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일본의 교육계 및 민간단체가 아시아, 특히 한국, 대만, 중국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 나라와 교육, 문화면에서 교류를 한다는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아시아를 침략하기 시작한 것은 「청일전쟁」(1894-1895) 전후이다. 그들의 당시 명목은 아시아제국과 교육, 문화 교류를 추진한다는 것으로 현지에 「日語学校」를 세우고 일본인 교사를 파견하는 등 식민지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기틀을 잡기 시작한다.

이러한 일본의 아시아에의 교육침략 정책과 병행하여, 당시 일본의 교육 잡지에는 그러한 정책을 정당화하는 기사 및 논설이 앞에서 논한 잡지등에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된다. 지금까지 한일 양국에서 식민지 통치기의 일본어교육정책 및 한국어(조선어)교육에 관한 정책연구 및 교수 학습에 관한 방법에 관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일본의 한국강압에 의한 식민지 통치 이전, 그것도 당시의 교육관계 잡지의 분석을 통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볼수 있다.

본고에서는 명치 당시 일본의 오피니언리더라고 불리던 사상가 교육자 정치가들이 쓴 아시아의 교육, 문화에 관한, 논설 및 사설 기사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명치 일본 지식인들의 対韓国教育政策觀을 분석해 그후 전개되는 일본의 35년간에 걸친 식민지교육통치의 토대를 만들어 가는 형성과정의 구체적인 경위를 언어정책을 중심으로 밝히는데 그 의의가 있다.

3. 「日語学校」 설립의 시대적 배경과 韓国教育觀

1876년 「강화조약」에서 1894년 「갑오개혁」에 이르는 시기, 일본 내에서는 일본이 서양제국과 비교하여 뒤떨어지지 않는 독립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어(일본어)를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표준어를 제정하는 등 국어의 통일을 위한 「국어개량정책」이 문부관리였던 우에다 카츠토시(上田万

年, 1867-1937)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이 개량안의 저변에 있는 언어관은 국가, 언어, 민족의 일체관으로 일본어는 일본인들의 정신적 혈맥이며 타민족의 혈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시기 일본 교육계의 한국에 대한 교육관의 중심이 된 사상은 한국의 근대화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일본어가 중요한 외국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청일전쟁」 이후 이러한 한국에 대한 교육관은 점차 바뀌어가 1905년 「통감부」 설치 이후에는 타민족인 한민족을 일본어에 의해 동화시켜야 한다는 정책으로까지 급진전하여 1910년 한국강압 이후에는 일본어에 의한 민족말살정책이 한국교육의 기본통치 이념이 되었다.

이러한 일본제국주의의 한국에 대한 교육침략의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일본인들에 의해 구한말 수많은 「日語学校」가 설립되었다.

이 시기에 설립된 「日語学校」는 두 종류로 분류되어 한 종류는 당시 구한국, 즉 대한제국 정부와 민족지도자들에 의해 교육구국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자주적이며 자생적인 근대교육에의 적극적인 개혁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 다른 한 종류는 일본의 제국주의 식민지 교육정책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협력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구한국 당시 일본에 의한 「日語学校」의 설립 및 활동은 크게 다음의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제1기 : 1894년 「갑오개혁」을 전후한 시기부터 1898년에 이르는 시기
- ② 제2기 : 1899년 「東亞同文會」⁷⁾의 활동 개시부터 1905년에 「러일전쟁」에 이르는 시기
- ③ 제3기 : 1906년 「통감부」 설치부터 1910년 한국강압에 이르는 시기
즉, 「청일전쟁」부터 「東亞同文會」의 활동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1기, 그 이후 러일전쟁에 이르기까지가 2기, 그리고 1906년 통감부 설치에서부터 한국강압에 이르기까지의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당시 공식적으로 설립된 「日語学校」를 양적인 면으로 보면 1기에 6개교, 2기에 23개교, 3기에 5개교, 계 34개교가 설립되었다.⁸⁾ 이것을 다시 설립자 별로 구분해 보면 한국정부에 의한 것이 2개교이고 「東亞同文會」에 의하여 설

7) 1898년 11월 「東亞會」「同文會」「亞細亞協會」가 합병하여 「東亞同文會」가 되었다. 主要한 활동은 한국 및 중국 특히 중국에서의 교육 문화 활동의 美名하에 日帝의 침략 정책을 돕는데 있었다. 한국에서의 주요 활동도 日語学校の 성립 과 일본어교육의 보급을 통한 식민지교육의 기초를 닦는 데 있었다.

8) 梅根悟監修. 世界教育史研究会編 『世界教育史大系 5』 講談社、1975년. 250-51쪽.

립된 것이 3개교, 「대일본해외교육회」⁹⁾에 의해 설립된 것이 2개교, 종교단체인 「히가시혼간지(東本願寺)」¹⁰⁾에 의한 것이 4개교, 그 이외 민간인에 의한 것이 17개교, 나머지 6개교에 관하여는 설립자가 밝혀져 있지 않다.

4. 「갑오개혁」을 전후한 개화기의 「日語学校」 설립과 韓国教育觀

이 시기에 설립된 대표적인 「日語学校」는 당시 구한국정부가 근대학문에 접근하려는 의지에서는 구미어를 중심으로 한 외국어학교와 함께 설립한 서울의 「官立日語学校」, 인천의 「官立仁港日語学校」가 있었다. 이들 학교의 설립 목표는 한국인 아동들에게 일본어 학습을 통하여 근대적 지식을 배양하려는 대한제국 정부의 의지가 있었다.

이 시기가 되면 일본인들에 의한 「日語学校」의 설립도 본격화되어, 당시 설립된 학교로는 「大日本海外教育会」에 의한 부산의 「開成学校」, 「草梁学院」, 「京城学堂」 및 앞에서 기술한 히가시혼간지(東本願寺)의 오쿠무라 이오코(奥村五百子, 1845-1907, 애국부인회의 창립자)에 의해 1896년에 설립된 광주의 「実業学校」가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아직까지 한국교육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도가 낮았기 때문에 「日語学校」의 설립도 매우 저조하였다. 「日語学校」 설립의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갑오개혁」을 전후한 시기, 일본인들은 한국의 교육에 관하여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그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당시의 대표적인 교육 잡지 교육시론(『教育時論』)의 다음과 같은 사설이다.

「...世間の教育上に無經驗なる論者の中には,朝鮮の子弟教ふるに,我日本のいろは四十八文字を依てし,我日本文字に依て,諸般の知識を取得せしむべしと論ずる者あれども,是れ甚き謬見なり. ...今其固有の文字を廃止し,代ふるに,我日本の文字を以てせんとするは,

9) 청일전쟁을 전후하여, 押川方義、本多庸一、松村介石、巖本善治등의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어 일본을 찬양하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동회의 주요 활동은 외국 특히 한국민에게 기독교선교를 통한 교육활동을 하는데 있었다고 한다.

10) 京都市 下京区에 있는 浄土真宗이 本山인 本願寺의 한파.

是れ取りも置さず、朝鮮の獨立を害あせんとする者にして、我政府が彼らに対する隣好の趣旨に反するや明らかなりとす。且教育の普及發達の上なり、之を論ずるも其の國固有のものを以て、知識傳達の媒介とおするの得策たる所以は…」¹¹⁾

즉, 한국의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는데 일본어로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것은 상당히 그릇된 의견이므로 한국인을 위한 교수용어는 한국 고유의 언어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논설에서는 한국의 교육을 연구하는 자는 한국어를 학습하여야 한다고 논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에 영향을 받아 당시 일본 국내에서는 후쿠자와에 의하여 「케이오기주쿠(慶応義塾)」내에 「조선어학교」¹²⁾가 설립되는 등 한국어 학습의 열기가 확산되어 갔다.

이러한 경향은 「청일전쟁」 이후 더욱 확산되어 한국, 중국과의 무역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어학교(韓語學校)」, 「청어학교(淸語學校)」 등이 일본내에 설립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청한로어학교(淸韓露語學校)」의 설립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당시 이러한 일본 국내에서의 상황은 한국 내에 설립되었던 서울의 「日人小學校」에도 영향을 주어 「日人小學校」에서 그때까지 배워왔던 외국어를 「영어」에서 「韓語(한국어)」로 바꿨다.

하지만 이러한 尙韓國教育觀도 「청일전쟁」 이후 가속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인하여 일본인 교육자들은 한국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의 개화를 위해서는 일본어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당시 서울의 「官立外國語學校」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던 오카쿠라 요시사부로(岡倉由三郎, 1868-1936, 언어학자)는 한국인에 대하여 「조선인은 자립심이 없고 문화는 정체된 상태이며 인심은 부패해 있고 한마디로 비굴한 민족」이라고, 다음과 같이 경멸을 하면서 한국인은 배우기 쉬운 점도 있지만 지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일본어를 배워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文化大に發達する暇なく、人心益腐敗して、卑屈に陥り…外國語は覺へ易きとと、目下朝鮮人に必要なる知識を包含する二點に於て、余は日本語を主張す…」¹³⁾

11) 「朝鮮教育を改良する方法如何」教育詩論』第37号.1894년3월25일.

12) 「朝鮮語の研究」『教育時論』349호. 1894년12월25일. 당시 설립된 「朝蘇語學校」는, 수업년한은 1년으로 매일 1시간씩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 수업이 이루어 졌으며 학과는 「諺文」 「綴字講義」 「單語」 「連語」 「翻譯」 「實地演習」 등이었다.

또한 일본의 승리로 끝난 「청일전쟁」의 결과 한국을 중국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완전히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일본과 근대화된 서양의 사상이 필요하다고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戦争の結果として,朝鮮の獨立を全くせしむべきは,無論なり,然れども朝鮮をして,外形上,支那の羈絆を脱せしむるも,精神上,支那の羈絆を脱せしむることは能はずんば,未だ其の獨立を完しく得たり謂ふべからず,精神上の羈絆を脱せしむるの方法如何よ言ふに,彼れ朝鮮人の精神は,支那の文物思想に依りて束縛せらるる者なれば,之に代るべき多種の文物思想を以て,彼が心意のな内包を形成せざるべからず…」 14)

이렇듯이 한국교육에 관한 일본인들의 사상은 「청일전쟁」 이후 노골화되어 한국에 대하여 빈약하고 무기력하고 부진한 나라라는 멸시와 함께

「…墮落せる朝鮮人民を矯正し其の百年の長弊を直し以て円満なる開發の正路に反らしめんと欲する…」 15) 「精神不振の国」 16) 「(後進者)」 17), 조선의 행복을 위해서는 일본어를 채용(日本語を採用するは實に朝鮮の幸福なり)18)

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주장과 함께 조선을 개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수용어를 일본어로 해야 하며 의무교육을 일본어로 시켜야 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교육에서 「漢文」과 「韓語」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당시 이러한 사상으로 한국민들에게 일본어를 주입시키기 위하여

「外国語を学ぶのが日本人より器用」 19)

「京城学堂の生徒は日本語の習得が早い」 20)

13) 「朝鮮の教育制度を如何にすべき」 『教育時論』 第338号 1894년 9월 5일.

14) 「時勢に対する教育問題」 『教育時論』 第350号 1895년 5월 5일 .

15) 巖本善治 「朝鮮教育大方針の議」 『太陽』 第1卷第4号 1895년 4월 5일 .

16) 本多庸一 「朝蘇教育談」 『東邦協會會報』 第40号. 1897년 11월 .

17) 辻武雄 「清韓留學生の教育主義を論ず」 『東亞時論』 第23号. 1899년 11월 10일 .

18) 堤虎造 「朝解教育策=漢文韓語の廢止日本語の採用」 『教育時論』 第359号. 1895년 4월 5日.

堤虎造 「朝蘇教育策 =漢文韓語の廢止日本語の採用」 (承前) 『教育時論』 第360号. 1895년 4월 15일 .

19) 辻武雄 「清韓留學生の教育主義を論ず」 『東亞時論』 第23号. 1899년 11월 10일 .

즉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일본인 보다 재주가 있다」 「경성학당의 생도는 일본어 습득이 빠르다」 라고 한국인들의 언어적인 재능을 높이 평가 하는 등의 감언이설로, 한국민에게 일본어학습에 전념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한국인이 일본어를 할 수 있게 되면 사업상 일본인의 이익이 극대화함으로 그러한 이익을 위해서도 한국인,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일본어를 주입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다음과 같은 일본인들의 책략이 도사리고 있었다.

「…将来の貿易は一層發達を觀るに至るべく夫れに付けて第一に必要なは彼我言語相通を謀るに在り現時我国人の朝鮮に在留するもの殆ど二万人上ぼるべく…皆獨立して其の事業を営むもんなれば前途同国子弟を教育して我国語に通せしめ比彼相持て事業を經營するあらば彼我利する所大なるものあるべきは疑を容れず…」 21)

이 시기는 이렇듯이 한국인들의 「행복」, 「사업상의 이익」을 위하여 라는 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당시의 「임오군란」, 「갑신정변」, 「청일전쟁」, 「민항후(명성황후)시해」 등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으로 보아 한국에서 정치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적인 기반을 착취하기 위한 일환이었음을 알 수 있다.

5. 「東亞同文會」의 활동과 「러일전쟁」까지의 「日語學校」 설립과 韓國教育觀

이 시기에는 청일전쟁 이후 「한일의정서」, 「제1차한일협약」, 「제2차한일협약」 등을 거치면서, 「顧問政治」가 시작되어 대한제국 정부의 각 부처에는 일본인 또는 친일 외국인인 고문으로 배치되어 「통감부」 설치를 눈앞에 두고 식민지정책에의 기틀을 다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이 시기에 들어와서 일본인들에 의한 「日語學校」의 설립은 제1기와 비교하여 현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세력이 한국 내에서 확장되었음과 동시에 1기에서 설립된 학교의

20) 「大日本海外教育會通信」 『教育公報』 第204号. 1897년11 월20일.

21) 「大日本海外教育會」 『教育時論』 第499. 1899년2월25일.

영향을 받아 「東亜同文會」 등의 민간단체가 지나(支那) 및 조선의 개혁을 달성한다는 목적으로 학교 설립에 착수하여 경쟁을 하듯이 「日語學校」의 설립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기에 설립된 23개교의 日語學校의 설립 분포를 보면 1898년 11월에 「東亜同文會」가 1899년 「私立平壤日語學校」를 설립함과 동시에 鏡城, 성진에 日語學校를 설립 운영하면서 그 밖에도 「日語學校」를 설립 보조 하는 등 간접적으로 학교운영에 참가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대구의 「달성학교」 통영의 「日語學校」가 설립되었다. 한편 「대일본해외교육회」도 전주의 「三南學堂」, 원산의 「源興學校」, 부산의 「開成學校」 및 「古館學校」, 동래의 「日語學校」, 밀양의 「開昌學校」 등이 설립되었다.²²⁾

당시 이러한 상황 아래서 한국 지배의 정당성을 일본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일본인들 특히, 한국정부에 고용되어 있던 일본인 관리들은 부정적인 한국관을 자국민은 물론 한국민들에게도 심어주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시데하라 타이라(幣原坦, 1870-1953, 정치가, 교육자)의 한국관을 들 수 있다. 시데하라 타이라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生意氣, 偏狹, 執拗, 陰險, 輕兆, 国が強弱」²³⁾ 즉, 건방지고, 편협하고 음험하고 약소국이라는 것이다. 또한 「정우회(政友會)」²⁴⁾ 협의위원 시게오카군고로(重岡薰五郎 1862-1906 정치가)은 불완전한 빈약한 나라 「不完全な人間, 貧弱な国」²⁵⁾ 니로쿠신포(二六新聞)도 「人文は中世以降停滞」²⁶⁾ 라고 표현하고 혼다요우이츠(本多庸一 1842-1912, 목사, 교육자)은 한국을 시찰하고 난 뒤에 보고서에서 「愚蒙怠惰」²⁷⁾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未開の国, 亡国の怠惰」²⁸⁾, 「猜疑心が強く, 辞令的, 不勤勉, 意気他なし亡国の惰態」²⁹⁾ 이라며 멸시와 부정으로 가득 찬 한국관을 가지고 있었다. 즉, 교육, 문화, 사회, 풍속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부정적인 한국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상 아래에서는 당연한 이치로 한국의 교육에 관하여도

22) 梅根悟監修、世界教育史研究会編『世界教育史大系5』講談社、1975년、250-51쪽.

23) 「韓國の教育に就きて」『教育界』第1第3号、1902년1월.

24) 정식명칭은 「立憲政友會」. 伊藤博文에 의해 1899년 그 활동이 개시된 이래 193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의 일본의 대표적인 정당.

25) 重岡薰五郎「韓國の教育を起こせ」『教育界』第3卷 第10号. 1904년8월3일.

26) 二六新聞 「韓國の教育」『教育時論』 第695号 1904년8월5일.

27) 「本多氏の韓國視察談」『教育時論』第702号. 1904년10월15일.

28) 伊願千助「韓國教育論」『中央公論』1904년11월.

29) 「教育家の渡韓を促す」『国学院雜誌』第11卷 3号.

「書堂,書房では読書習字の二科目しか教えないがこれに韓国人は満足しているのは驚きである」³⁰⁾

라고 하며 한국인들은 서당에서 독서, 습자 두 과목 밖에 가르치고 있지 않지만 이것에 만족하는 것을 보고 놀랄 뿐이라고 당시 한국의 교육 제도 그 자체를 부정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이 세계에서조차 약소국이 된 것은 교육이 부진하였기 때문이므로 한국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일본이 노력하여야 한다고 한다.³¹⁾

그러한 연유에서 일본교육계의 한국교육관은 단순히 「개화」 및 「실리」 추구 수단으로서의 일본어의 차원을 넘어 「동화」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일본어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이 당시 한국 시찰을 마치고 귀국한 요미우리 신문 편집장 주필을 거쳐 당시 한성신보 사장 겸 일본인 거류민단장이었던 나카이키타로우(中井喜太郎 1864-1924,)가 「제국교육회」에서 행한 연설이다.

「最も注意すべきは韓国人を日本人に感化するに自国語を教ゆることである」³²⁾

즉, 한국인으로 하여금 일본인에게 감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어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교육관은 앞에서 소개한 1905년 대한제국 학부의 「学政参与官」에 취임한 시데하라 타이라에 의해 구체화되어

「小学校に日本語の一科を加へたということは根本的にその障壁を除去することとなりしがって和衷の実があがることとなるであろう」³³⁾

라고 한국인들을 「일본인에게 감화」시키는 일, 즉 동화를 목적으로 한국의 소학교에 일본어를 정식 과목으로 설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이렇듯이 일본어보급에 몰두하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국교육의 장애가 일본어교육의 보급에 걸려있기 때문이며 그러한 연유로 일

30) 野尻視学官の弁「韓国教育の現状」『実験教授指針』第4卷第11号.

31) 「朝鮮の教育事業(時事新報)」『教育時論』第663号. 1903년9월15일.

32) 「韓国における教育事業」『実験教授指針』第1卷第11号 1902년11월8일.

33) 「韓国教育と日本語」『教育研究』第17号.1905년8월.

본인이라면 한국교육과의 관계 여하를 묻지 말고 한국교육에 관하여 알아야 한다³⁴⁾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주장들은 러일전쟁의 승리를 계기로 일본어 통역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일본인들은 이것을 한국에서 일본어를 보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인들에게 일본어를 보급시킬 목적으로 재한일본소학교장 등이 중심이 되어 「일한교육협회」를 조직하는 등 「제국교육회」는 일본어 보급에 대한 대강(大綱)을 작성하여 중학교 이상의 교수용어를 일본어로 하자는 안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6. 「통감부」 시기의 「日語学校」 설립과 한국교육관

이 시기에 설립된 대표적인 「日語学校」로는 해주 전주 용암포 등의 「일어학당」이 있다. 그러나 당시 많은 「日語学校」가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日語学校」 수는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뒤에서 논하듯이 「통감부」가 설치되어 학제의 정비와 함께 실시된 「모범교육(模範教育)」정책의 실시에 의해 각 학교의 교과목에 일어가 필수과목으로 들어가,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일본인 특히 개인 및 단체에 의해 설립 운영되던 「日語学校」는 많은 학교가 당시 하여야 할 역할을 마치고 폐교 내지는 각 학교에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러일전쟁」의 승리로 인하여 완전히 한국에서 세력을 독점한 일본이 본격적으로 내정간섭을 할 목적으로 통감부를 설치하여 한국의 외교관을 박탈하는 등 식민지화 작업의 박차를 가하고 있던 때이다.

교육분야에도 본격적인 침략을 위한 행동이 전개되어 1907년 차관정치(차관정치)의 개시와 함께 타와라마고이치(俵孫一1869-1944, 정치가)가 「学部次官」으로 취임하였다. 이 시기에 들어와서는 노골화된 침략정책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일본인들은 자국민들에게 한국 지배의 정당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부정적인 한국관을 적극적으로 교육관계 잡지에 집필, 게재하고 있다.

당시 일본인들의 대표적인 한국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34) 「韓國の教育如何」 『教育時論』第686号.1904년5월5일.

에하라타이로쿠(江原泰六 1842-1922, 기독교주의 교육자, 정치가)이 『教育公報』 옛 신문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한국인들은 두발로 걸어다니는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철저히 한국인들을 경멸하고 있다.³⁵⁾ 정치가이며 역사가였던 타케코시요사부로우(竹越与三郎 1865-1950)도 「朝鮮人は元來空文を尊み、淨華を競ふの民である」³⁶⁾ 라고 한국인들을 보고 있다. 그 밖에도 대표적인 한국인관으로는 「墮落した国民」³⁷⁾, 「人民は怠惰にして不潔なる生活に甘んじ」³⁸⁾ 등 한민족을 타락한 국민, 더럽고 불결한 민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한국인들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명목 하에 앞에서 논했듯이 「모범교육」을 한다는 이유로 한국의 각급학교에 일본인 교사가 배치되는 등 각종 법령을 공포하여 사립학교와 교과용 도서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일어가 「보통학교」의 교육과정에 1학년부터 매주 6시간씩 들어가게 되었다. 이 시기의 각급 학교의 교과목에 대하여 살펴보면 보통학교의 경우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 학년에 걸쳐 주 6시간(주간 총수업 1-2학년 28시간, 3-4학년 30시간), 중등학교에서도 1-4학년 공히 6시간(주간 총 수업시간 30시간)을 비롯하여 농업학교 공업학교 등의 실업학교에서도 일본어교육이 의무화 되었다. 더욱이 외국어교육의 영어 독어 불어 한어(漢語) 등의 각과에서도 수의과(隨意科)로서 일본어가 2-3학년생들에게 주 2시간씩 의무화 되었다.

이렇게 각 학교의 교과과정에 일본어가 첨가된 일에 대하여 동경고등사범부 속소학교에서 편찬하던 『教育研究』에서는 다음과 같이 어디까지나 평화유지를 위해서 라고 한다.

「我が国が韓国に接触すればあ必ず地を流すという歴であった。…彼の小学校の強んに日本語の一科を加へたということは根本的にその障壁を除去することとなり」³⁹⁾

이 시기 일본교육계에서는 어떠한 對韓國教育觀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당시 일본어교육이 하여야 할 일에 관하여 「学部書記官」이었던 미즈시츠히조우(三土忠造1871-1948, 정치가)는 한국인이 일본어를 아는 일이 한일간의 현실, 상업, 통상, 교통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고 한다.⁴⁰⁾

35) 江頂素六 「韓国の外観と其の教育に就て」 『教育広報』 第 300号. 1905년10월.

36) 竹越典三郎 「韓人教育に就ての謬見」 『教育時論』 第746号. 1906년1월5일.

37) 田中玄黄 「竹越氏の韓人教育論を読み」 『教育時論』 第750号. 1906년2월15일.

38) 堀江秀雄 「韓国教育問題」 『国学院雑誌』 第14卷 第1号. 1908년1월15일.

39) 「韓国教育と日本語」 『教育研究』 第17号. 1905년8월.

이러한 일본어교육 정책에 대한 한국 민중의 열렬한 저항운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천박한 오해」라고 단정하고 있다.

「普通学校ノ初年級ヨリ之ヲ課スルヲ以テ上下著シク不快念ノ抱キ曰ク韓国ノ言語ヲ日本ノ言語ニ変更セントスルモノナリ曰ク韓国ノ国民性ヲ減失セシメント企ツルモノナリ更ニ下級ノ地方民ニ至リテハ曰ク日本語ヲ授ケテ後來日本ノ兵隊タラシメントスルモノナリ曰ク日本ニ拉致シテ勤勞者又ハ奴隸タラシメンガ為メナリナド憤飯スベキ淺薄ナル誤解」 41)

그러나 보통학교의 초학년부터 일본어를 과하는 일은 장래 한국의 국어를 일본어로 하려는데 있고 나아가서 일본의 군대 및 노동자, 즉 노예로서 일본으로 끌고 가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며 일본어교육을 거부하는 한국민들의 저항운동은 단순한 천박한 오해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 후 이러한 저항운동은 적중되어 식민지하에서 징병, 징용, 위안부 등의 형태로 한국민중을 철저하게 착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한국에 대한 교육정책에 대한 일본 국내에서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에 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학습원 학사였던 마츠미야쑨이치로우(松宮春一郎1875-1933)는 일본적인 교육을 한국에서 실시하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여러 가지 일본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일본을 신뢰시킬 수 있는 길이며, 또한 한국인이 일본어를 할 수 있게 되면 일본에 대한 동정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원만한 한일관계가 유지 될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自立だずして而も深く遠きは教育的同化法に如がざる也日本的の教育韓国を行なふ事とすれば政治的より經濟的より来る誤解も打ち消され知らずの間ニ韓国を日本に信賴せしむるに至るべし今之を教育の一部たる日本語の普及に就て見るも日本語を能くする韓人は自然に同情を日本に有するが如し…韓国に日本語を普及し日本の教育を行ふは日韓關係を滑かにするに於て至大の效果あるべし」 42)

또한 가나자와쇼자브로우(金沢庄三郎 1872-1967, 언어학자)는 『태양』에서 한국에서의 언어교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40) 高橋浜吉 『朝蘇教育史考』 1927년. 172-74쪽.

41) 学部 『韓国教育が概往及現在』 1909년. 28-31쪽.

42) 「韓国教育の現在及將來(下) 『外交時報』 第8卷第94号.1905년9월.

「韓国の小学校教育を我国教育家の手で施すに就いて,先づ第一に起るのが言語の問題であるが,教授に用べき言葉は無論日本語で宜しい.…邦語を以て朝鮮教育を行なふという事は 思ったよりやさしい事で,其の上語族の関係より自然に彼我的感情を融和することが出来る」⁴³⁾

즉, 한국의 소학교에서 일본인 교사가 교육을 실시할 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언어 문제이지만 교수용어는 일본어로 하여도 무방하다면서, 한국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로 한일의 언어는 동일어족으로 감정의 융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부관료로 교토(京都)대학 총장을 역임한 오카다료우헤이(岡田良平 1864-1934)은 한국은 일본의 보호하에 있음으로 일본어를 교수용어로 하여 세계고급의 지식의 흡수는 물론 양국 간의 사상과 감정을 융화 및 동화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한국의 고래로부터의 국시였다는 것이다.

「今や韓国は本邦保護の下にた立つに至れり,然れば邦語を以て教育語となし世界古今の知識を吸引するの手段と為すのみならず,両国間の思想感情を融和どうかするの手段と為すは韓国古来の国是に合ふものにあらずや」⁴⁴⁾

7. 나가는 말

이상 구한말 일본교육계의 한국에 대한 일어교육관(日語教育觀)을 중심으로 대한교육관(對韓国教育觀)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 일본교육계의 한국에 대한 일어교육관의 특징은 크게 나누어서 「개화」, 「실리」, 「동화」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갑오개혁을 전후한 시기에는 한국의 개화를 위해서는 일본어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그 후 청일전쟁의 승리 후 한국에서 어느 정도 실권을 장악한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은 한국을 「개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어를 배워야 한다는 논리였다. 즉, 일본어를 배우는 길이야말로 한국이 부강해지는 길이라는 「실리」적인 측면에서 일본어를 배울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한국인들이 일본어를 배우는 길은 일본의 실리를 위해서도

43) 「韓国の教育に就いて」 『太陽』 11卷12号. 1905년9월1일.

44) 「韓国教育論」 『太陽』 11卷 13号. 1905년10월1일.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일본교육계의 한국에 대한 일본어교육관도 러일전쟁 이후 통감부 설치와 함께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의 사상소통을 통하여 직업 생활면에서도 필요함으로 일본어를 배워야 한다는 「실리」적인 면을 내세우면서 노골적으로 「사상감정의 융화 동화」, 「일본화」를 내세운 「동화」를 위한 수단으로써의 일본어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교육관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한국에 대한 교육관은 한국강압 이후에는 강압적인 「동화정책」을 실시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언어말살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인들에게는 한국 및 한민족에 대하여 강렬한 민족멸시관을 심어주었고, 한국인들에게는 강한 민족적 열등감을 주입시키는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아직까지도 일본인 및 일본교육계에 한국에 대한 멸시관(蔑視觀)이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것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 논문의 시대적 배경이 된 명치기는 한국강압전이라 당시의 한국인 사상가 교육자등의 글은 전무하나 한국강후에는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교육자 사상가들 중에 일본명으로 교육관계 잡지등에 적극적으로 사설을 쓰거나 선동한 지식인들도 적지않다. 그들의 사상을 분석 규명하는것도 금후의 커다란 과제의 하나이다.

행복한 삶은 인간의 본성이 실현된 삶일 것이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인간들은 한결같이 노력해 왔다. 인간에게는 파괴할 수 없는 것은 평등 사상이다. 왜냐하면 인간 사이에서는 한편을 다른 한편에 종속시킬 만큼 큰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명화된 상태에서는 환상적이며 공허한 권리의 평등이 있다. 인간은 혼자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나 착하게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기심은 인간이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감정이지만 자애심과는 다르다. 이기심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를 사랑하도록 요구하는, 즉 밖의 것을 자기에게로 집중시키고자 하는 탐욕적인 자기 존재에 대한 사랑이다. 이것은 국가간의 관계도 같다고 할수 있다. 글로벌 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이논문을 정리하면서 요즘 한일 관계가 120여년전의 관계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 한국인들에게는 식민지 통치에 대한 감정적 반발에 의한 무비판적인 반일감정과 일본인들에게는 한국에 대한 위에서 논했듯이 비인간적인 식민지 지배와 과혹한 민족성 말살 정책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육제도가 일본화된 것을 가지고 한국의 근대화에 공헌했다는등 아무런 반성도 없이 겸한감정등을 내세우고 있다. 즉 양국민들

사이에는 내적 감정이 대립해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는 것은 필자만이 아닌가, 이러한 문제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정치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역할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면서 이논문을 접는다.

【참고문헌 및 자료】

1. 学部 (1909년) 『韓国教育が概往及現在』.
2. 近代アジア教育史研究会(1995년) 『近代日本のアジア教育認識—明治後期教育雑誌所収中国・韓国・台湾関係記事—(目録編)』 龍溪書舎.
3. 近代アジア教育史研究会(2000년) 『近代日本のアジア教育認識—明治後期教育雑誌所収中国・韓国・台湾関係記事—(資料編)』 (全8卷+別卷) 龍溪書舎.
4. 金泰勳(1996년) 『近代日韓教育關係史研究序説』 雄山閣出版.
5. 金泰勳(1996년) 「旧韓末の教育狀況」 近代アジア教育史研究会 『近代日本のアジア教育認識—明治後期教育雑誌所収中国・韓国・台湾関係記事—(資料編)』 龍溪書舎.
6. 高橋浜吉(1927년) 『朝蘇教育史考』 帝国地方行政学会.

要 旨

本稿は明治日本の教育関係雑誌の記事などの分析を通して当時の対韓国教育觀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日本教育界の韓国教育觀の特徴は、大きく「開花」「実利」「同化」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まず「甲午改革」を前後した時期には、韓国の開花のためには、「日本語」が肝要であると主張している。しかし、「日清戦争」の勝利の後には、韓国を「開花」させるためには、日本語を学ばせ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になる。つまり、日本語を学ぶこそ韓国が富強になることであり、「実利」的な側面から日本語を学ぶことを主張している。

日本の教育界の韓国に対する日本語教育觀も「日露戦争」の後「統監府」開庁とともに韓国人は日本人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だけでなく職業をするためにも、日本語を学ば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実利」的な面だけではなく、「思想・感情の融和同化」「日本化＝同化」のための手段として日本語教育が必要がある教育觀が主な支配的であった。

こうした韓国教育觀は「韓国併合」後には強圧的な「同化政策」を実施するのに必要不可欠な言語抹殺政策を推進しながら、日本人には韓国と韓民族に対して強烈な民族蔑視觀を植えていた。韓国人に強い民族的劣等感を浸透させる教育政策を推進していた。

キーワード：明治日本 旧韓国 対韓国教育觀 教育雑誌 韓国語教育
日本語教育 言語政策

투 고 : 2014. 11. 30
1차 심사 : 2014. 12. 13
2차 심사 : 2015. 1. 3